

호남 지역 최초 IBM '왓슨 포 온콜로지' 9월 25일 본격 가동!!

- ▶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인공지능’
 - ▶ IBMWatson포온콜로지의 적극 활용으로 암 치료 선도병원으로 발돋움



최근 국내 산업의 최대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IT 기술의 빠른 발전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서는 인터넷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바이오기술 등인데, 이중에서 의료산업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산업분야 중 암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국내 병원에서 최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를 호남 지역 최초로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홍)이 도입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암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위해 IBM과 6월 26일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적용시험기간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후에 오는 9월 25일 진료에 적용한다.

암 치료에 특화된 웨이브 온콜로지는 300개 이상의 의학저널, 200개 이상의 의학교과서,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정보, 치료 가이드 라인을 분석하여 각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제안하여 의사의 진료를 돕는다.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암센터장 박치영 교수(총양혈액내과)는 “우리 병원이 심평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 각종 암질환(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1등급을 달성한 만큼, 의료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과의 다학제팀과 함께 왓슨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까지 다니는 암환자들의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주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곳지는기반 정밀이로 암센터 (062) 220-3418 3419

전국 최초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

- ▶ 3개권역(중부·호남·영남) 소재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전국 첫 번째로 최종 선정
 - ▶ 신종 감염병의 진료 및 인력 교육·훈련 등의 역할 담당



8월 10일 전국에서 최초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의 서면·발표평가 및 지정
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현지 실사를 거
쳐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이뤘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같이, 신종 감

염병은 백신 및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격리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안이며, 특히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대규모 감염병 전파에 대비한 국가 재난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게 됐고, 전국 3개권역을 대상으로 공모 한 결과, 최종적으로 조선대병원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 17. 2/10 지정)과의 효율적인 협력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의 치료·진료 ▲감염병 대응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대규모 감염병환자등 발생 시 위기 대응 등의 역할을 토대로 지역은 물론 범국가적인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최전선에서 의료지원을 나



이미,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및 치료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상홍 병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감염병의 확산 추세가 매우 무섭다. 과거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선정으로 우리 지역은 물론 국가적인 감염질환의 발생 시,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만큼, 만발의 준비를 거쳐 호남은 물론, 영남·중부 등 향후에 전문병원의 추가 개설 시, 우리 병원의 시스템과 시설물 등이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전국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환자의 안전과 쾌유를 위한 병문안 문화, 다 같이 동참해요

- ▶ 병문안 개선을 위해 스크린 도어 설치
- ▶ 평일(1회) 18:00 ~ 20:00
- ▶ 토·공휴일(2회) 10:00 ~ 12:00
18:00 ~ 20:00



제2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면회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 부처 및 전국의 병원은 원내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었고, 이에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한 시간에만 병문안이 가능하도록 공통기준(2015.11 보건복지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 역시 정부의 병문안 문화 개선 노력(2017.02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의료질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총 OO여곳의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함은 물론 환자들의 안정과 빠른 쾌유를 도모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운영 방침으로는, 입원창구에서 발급 받은 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 병

동 출입문에 부착된 바코드 리더기에 출입증 인식 후, 반드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정상적으로 입실이 가능하다. 이는 '메르스'유행 당시, 무분별한 방문 면회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역학 조사의 어려움을 겪은 바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토록 했다.

면회시간은 평일(1회) 18:00~20:00, 주말(2회)은 10:00~12:00, 18:00~20:00 까지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동은 기존에 운영되던 시간과 동일하게 면회객을 제한하게 된다.

이상홍 병원장은 "시행 초기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병문안 문화가 바뀌게 되면 감염의 확산 방지는 물론 쾌적한 환경으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직원 ID카드 사용 모습



환자 보호자 카드 사용 모습

캄보디아 환아들에 사랑의 인술 제공



올해 2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이후 초청한 환아 2명에게 사랑의 인술을 제공했다.

이번에 초청된 환아 2명은 프응쯩다(여, 11)와 비락(남, 12)으로 캄보디아 캄퐁스ием 광주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치료했던 환자 중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프응쯩다(여, 11)는 심실·심방증격결손을 앓고 있어 상세불명의 심장음이 들렸고 비락(남, 12)은 어릴 적 뇌수막염을 앓은 이후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고 왼쪽 눈은 백내장과 망막박리가 심하게 진행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했다.

소아청소년과 박영봉 교수, 흉부외과 서홍주 교수, 안과 김대현 교수의 진료 및 수술로 아이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졌으며, 수술 후에는 빠른 회복을 보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프응쯩다(여, 11)의 어머니 파짠느응(45)은 "우리 딸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준 의료진들과 머무르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대외협력실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조선대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추억들을 가슴에 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상홍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원한 두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건강한 삶이 어려운 해외환자들을 위해 조선대병원은 최선을 다해 사랑의 인술을 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긴급구호대 협력기관 선정 현판식 거행

- ▶ 광주 및 전남·전북권역에서 유일하게 선정
- ▶ 해외재난 발생 시, 의료지원의 선봉장 역할



7월 13일 병원 1층 로비에서 해외긴급구호대 협력기관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

해외긴급구호법에 의거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 구호대의 파견을 통해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구호의 선봉장에 서게 되는데, 광주 및 전남·전북권역에서는 조선대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현판식은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해외 재난 시 구호활동에 투입될 'KDRT(Korea Disaster Relief Team,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를 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는 이상홍 병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조태익 국장, 김진숙 사무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박병렬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환담 후 현판 수여와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홍 병원장은 "우리병원은 지방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료 진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 및 긴급의료지원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즉각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교직원 역량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CS 교육 실시

환자경험평가 및 인증평가 대비, 교직원 역량강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9회 실시했다. 교직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애사심과 단결력 등을 확인하며, 자신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고, 평상시 소홀 할 수 있었던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와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고객만족의 중요성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 직종별로 고객응대와 불만 고객의 고충 처리 방법 등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소속 직원들 간의 내부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직원역량강화를 통해 협력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교육을 통해 의료 질을 향상시켜 환자에게 신뢰받고 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교도소 의료지원 활동 펼쳐



광주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시설 및 환경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위해 병원 내원이 어려운 재소자를 대상으로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이 직접 재소자들의 기본 건강 및 피부질환 등의 상태를 점검 후, 적합한 치료를 진행했다.

이상홍 병원장은 "재소자들에게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료 환경 향상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일대의 교도소(광주, 장흥, 해남)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소자들이 방문을 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 협조로 해당 교도소 직원 및 재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병원 내원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직원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병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선대병원 고문변호사인 오후일 변호사를 초빙해 영화 속 사례를 활용한 알기쉽고 재미있는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직장내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숙지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건전한 성가치관을 함양해 존중과 배려가 있는 온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교육을 이수한 한 전공의는 "이번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온바른 성지식과 성윤리 의식 정립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밝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가 '2018 AFC U-23 챔피언십' 지역 예선에 출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닥터로 활약했다. 이준영 교수는 2011년 세계 청소년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2년 킹스컵 국제축구대회, 2014년 AFC U-16 챔피언십 그리고 이번 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발탁되어 베트남 원정길에 오르는 태극전사들의 건강을 또한 책임졌다.

대한족부족관절학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뛰

어난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현재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장,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 광주축구협회 이사, 광주FC 및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닥터로 활동하며 스포츠의학뿐만 아니라 족관절 질환에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준영 교수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치의로 또 한 번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국가대표팀의 부상방지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그라운드 위에서 더욱 열심히 뛰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종양혈액내과 박상곤·이희정 교수, 대한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종양혈액내과
박상곤 교수종양혈액내과
이희정 교수

종양혈액내과 박상곤 교수와 이희정 교수는 5월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혈액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2017년도 혈액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 논문은 대한혈액학회 영문학회지 'Blood Research'에 게재되며, 박상곤 교수와 이희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보이는 파종성 응고 장애와 다른 유형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보이는 파종성 응고 장애의 혈액학적 지표가 다를 것을 증명했고, 이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임상적 공로를 인정

받아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박상곤 교수와 이희정 교수는 다수의 SCI급 논문을 게재함은 물론, 2013, 2014년 2년 연속 내과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과 진료를 통해 의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박상곤 교수는 미국암학회, 유럽혈액학회, 대한임상암학회 정회원으로 최근 알버타주 암센터에서 1년간 연수하였고, 이희정 교수 역시 대한내과학회, 대한임상암학회, 대한혈액학회 정회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집행부 보직자 인사발령

기획실장



소아청소년과 노영일 교수

진료부장



마취통증의학과 임경준 교수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8월 23일 오후 2시 제404차 민방위의 날 관련하여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14시에 울린 공습경보에 맞춰 이뤄졌으며, 20여분간 차량통제 및 주민(환자 및 직원)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어진 교육에서는 방독면의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제세동기 사용방법 숙지 등 위급상황에서의 생존방법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매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맞춰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교육받고 훈련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업무협약식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이하 심평원 광주지원)과 지역의료 발전 및 상호간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7월 26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이상홍 병원장과 김형호 지원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보 분야를 포함한 연구 및 상호지원 등을 토대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 광주지원과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정보교류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공동 연구 ▶빅데이터 이용으로 광주·전남 특성에 맞는 의료 연구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김형호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위해, 호남권 최초의 ‘왓슨포온콜로지’를 바탕으로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의료발전에 이바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상홍 병원장은 “왓슨 도입과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심평원 광주지원과 적극적인 인적·물적 교류로 양 기관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갈수록 흡연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흡연의 폐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흡연자에 대한 ‘병의원 금연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광주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 및 지역사회 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해당 진료과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금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16년도 금연치료인원수 및 프로그램 이수율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실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 중이염은 주로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의 기능장애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생기는 것으로,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절반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15세 미만의 유소아중에 ▶급성화농성중이염 ▶급성장액성중이염 ▶기타급성비화농성중이염 질환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조선대병원의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50%로, 전체 평균 82.97%보다 약 32% 낮아 1등급을 받았다. 성인에 비해 면역기능이 미숙하고, 유소아 이관의 구조적 특성상 감염균을 통해 중이염에 걸리기 쉬우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난청 및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소아에게 중이염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우선이다. 이상홍 병원장은 “유소아에게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항생제 처방과 투약일수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소아 건강을 책임지는 1등급 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약국간 상생의 장 마련



8월 28일 오후 6시 하종현홀에서 병원 주변 협력약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 정현철 약사회장과 박춘배, 유동국 부회장 등 광주시 약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조선대병원 주변 협력약국 약국장, 의료진 및 약제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실시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현재 의약품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으며, 약국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허심탄회하게 병원 관계자와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조선대병원 약제부의 임상파트 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지역 약국의 현안 ▲약물이상반응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약국과 병원간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으로 구성하여 생산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권용은 교수(알레르기내과)의 의약품 안전관리 및 사용에 대해 협력 약국간의 상생을 도모하였고, 이상약물 보고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해 협력 약국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상홍 병원장은 “조선대병원과 협력 약국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지역의 대표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병원과 약국의 발전은 물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0일 광주광역시약사회와 상호 발전 및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힐링나들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행복한 하루 선사



7월 5일 담양군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힐링나들이'를 가졌다.

조선대병원의 일원으로서 봉사자들에 대한 노고와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봉사자간의 유대감 형성 및 단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번 힐링나들이는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자원봉사자 대표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오후에는 담양 죽녹원 숲길 걷기와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하며 자원봉사자간의 친목도모 및 담당자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홍 병원장은 "자원봉사자분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병원이 지역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었다"며 "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은 "오늘 멍고 습한 날씨였지만, 이런 기본 좋은 행사를 마련해 준 병원 관계자 및 사회사업팀 선생님들께 매우 감사하다"며, "몸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선아트 갤러리' 초청, 환자쾌유 기원 전시회 개최



한국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과 미술대학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선아트 갤러리'는 8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신관 1층에서 유화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행사는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에게 미술 관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원생활로 지쳐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

감 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선아트 갤러리(대표 최진원) 소속 회원들이 직접 그린 유화 작품 4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환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이며, 잠시나마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

이상홍 병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기를 바란다"며 진심어린 쾌유를 베풀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한 '사랑의 다과 나눔행사'



8월 24일 오전에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스님)와 함께 내원객들에게 전통차와 커피를 제공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관 1층 로비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수년간 이어온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에서 주관하였으며, 환자와 보호자 및 직원들에게 손수 전통차를 끓여 나눠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깐이나마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란다"며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쾌유의 메시지를 보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의 웃음과 미소를 보며 힘을 낼 수 있었다.

살레시오여고 학생 대상으로 진로체험 실시

7월 21일 보건의료 진학을 희망하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 진로체험 견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병원 소개와 전반적인 의료체계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병원내 다양한 직종에 대한 이해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의료업무 설명 ▲병원 투어 ▲보건의료 직종별 소개 ▲직종별 견학 및 질의응답 등 견학과 소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병원 및 의료업계 전반에 대해 설명을 담당한 대외협력팀장 최지윤 교수(이비인후과)는 "병원은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는 만큼, 본인의 장래희망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진로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진실된 조언을 전했다.



병원
소식

CHOSUN UNIVERSITY HOSPITAL



삼호의료재단·무안종합병원·
전주고려병원,
조선대병원 & 조선대학교 CU Again
7만 2천 발전기금 기부



삼호·무등산 의료재단(이사장 장호직)은 8월 21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조선대병원 발전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삼호·무등산 의료재단의 장호직 이사장은 지역사회 의 의료발전 및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선대병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장호직 이사장이 운영하는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일반 요양병원과 다르게 암 특화 재활 치료병원으로 2012년 개원하여 전남 및 광주지역의 암환자 및 암 후 속치료를 요하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상홍 병원장은 “현재 우리 조선대병원은 IBM사의 맞손포온클로저를 호남권 최초로 도입하여 암 환자들

에게 좀 더 나은 치료법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발전기금을 통해 지역 내 암 환자 치료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발전기금을 기부해 준 장호직 이사장 및 무등산 의료재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장호직 이사장은 8월 31일에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국제평화비전 선포식 및 UN합창단 공연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보탬이 되고자 대학본부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한편, 무안종합병원(병원장 김용석)과 전주고려병원(병원장 박근호)에서도 조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CU Again 7만 2천에 동참하여 각 1,000만원씩 기부했다.

2017년 3차 스마일 교직원 및 스마일 부서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 참여방법 : 10만원 이상 참여 가능하며, 입금 후 기획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또는 직접 납부

-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002-107-000819, 예금주 : 조대병원
농협중앙회 605-01-009496, 예금주 : 조대병원장

- 직접 납부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10층) 방문

* 문의 : ☎ 062) 220-3732 Fax. 062) 227-3215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 발전기금담당

* 혜택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부자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약정현황 (2017. 5. 1. ~ 8.31.)

(단위: 원)

번호	소속	성명	약정금액	누계
1	의료법인 무등산의료재단	장호직	10,000,000	10,000,000
2	서울척병원(의대 32회)	장근수	(매월) 100,000	평생 약정
3	송정안과의원(의대 22회)	김명덕	7,000,000	20,188,700
4	아이안과의원(의대 26회)	세정성	8,000,000	9,347,600
5	바른안과의원(의대 29회)	이명창	7,000,000	7,578,000
6	진료부, 총무부	교직원 2명	2,000,000	26,691,140
7	총무부	박상현	200,000	10,000,300
8	환자보호자	남기*	1,377,000	1,377,000
합 계				35,677,000

◆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위생 우수직원 시상식 (2017년 2분기)

최우수상



신장내과 신병철

최우수상



교육수련부 전승훈

최우수상



병동간호2팀 박화아

▶ 최우수상(3명) – 신장내과 신병철 교수, 교육수련부 전승훈 인턴, 병동간호2팀 임청아 간호사

▶ 우수상(5명) – 특수부서간호팀 김현숙 간호사, 신경외과 정용준 전공의, 병동간호1팀 김수연 간호사, 병동간호2팀 정새롬 간호사, 영상의학팀 김세환 방사선사

우수상



특수부서간호팀 김현숙

우수상



신경외과 정용준

우수상



병동간호1팀 김수연

우수상



병동간호2팀 정새롬

우수상



영상의학팀 김세환

여러분이 건학 100년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CU Again
7만 2천
발전기금 모금사업



조선대학교발전기금 www.chosun.ac.kr/fund

TEL. 062-230-6735 / FAX 062-232-8977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광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대의원정비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